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시사프리 6면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보육 최일선 현장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제1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0일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 육아 복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살펴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방문한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장경희)는 2012년 3월 문을 연 이래 지하1층~지상3층과 옥상의 시설에 12명의 센터직원과 17명의 특수사업 직원들이 가정양육지원사업, 어린이집지원사업, 지역연계사업과 기타 특수사업으로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털 복지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김도연 위원장을 비롯해 이용균 부위원장, 박문수, 이영심, 한동진, 유인애, 김명숙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영·유아프로그램, 어린이집 보육직원 전문성증진교육, 골목대장 역사·문화 탐험 등의 주요사업과 보육반장사업, 마음 두드림(Do-dream), 시간제



보육사업 등의 특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체교사 모집, 회계 컨설팅, 주차 관리 문제, CCTV 설치 등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시간여의 현장 활동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대여실, 상담치료실, 세척실, 사무실 등 각 층 주요시설을 둘러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으며, 김도연 위원장은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도 편리하게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최고의 육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보육교사들에 대한 스트레스 예방과 전문교육으로 여성과 아동 모두가 행복한 강북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유영일 기자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보육 최일선 현장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제1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10

일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육아 복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살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살펴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펴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장경희)는 2012년 3월 문을 연 이래 지하1층~지상3층과 옥상의 시설에 12명의 센터직원과 17명의 특수사업 직원들이 가정양육지원사업, 어린이집지원사업, 지역연계사업과 기타 특수사업으로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털 복지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김도연 위원장을 비롯한 이용균 부위원장, 박문수·이영심·한동진·유인애·김명숙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영유아프로그램, 어린이집 보육직원 전문성증진교육, 골목대장 역사·문화 탐험 등의 주요사업과 보육반장사업, 마음 두드림(Do-dream), 시간제보육사업 등의 특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체교사 모집, 회계 컨설팅, 주차 관리 문제, CCTV 설치 등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2시간여의 현장 활동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대여실, 상담치료실, 세척실, 사무실 등 각 층 주요시설을 둘러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 보육최일선현장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대체교사 모집, 주차문제, CCTV 설치 등 문제점과 개선 방법 논의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아 현장 활동을 펼쳤다.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제1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0일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인수봉로 66길 9)를 방문해 육아 복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살펴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장

경희)는 2012년 3월 문을 연 이래 지하 1층~지상3층과 옥상의 시설에 12명의 센터직원과 17명의 특수사업 직원들이 가정양육지원사업, 어린이집지원사업, 지역연계사업과 기타 특수사업으로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달 복지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김도연 위원장을 비롯한 이용균 부위원장, 박문수, 이영심, 한동진, 유인애, 김명숙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영유아 프로그램, 어린이집 보육직원 전문성 증진교육, 골목대장 역사·문화 탐험 등의 주요사업과 보육반장사업, 마음 두드림(Do-dream), 시간제보육사업 등의 특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체교사 모집, 회계 컨설팅, 주차 관리 문제, CCTV 설치 등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2시간 여의 현장 활동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대여실, 상담치료실, 세척실, 사무실 등 각종 주요시설을 둘러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김도연 위원장은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도 편리하게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최고의 육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보육교사들에 대한 스트레스 예방과 전문교육으로 여성과 아동 모두가 행복한 강북구가 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육아 복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제1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10일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인수봉로 66길

9)를 방문하여 육아 복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살펴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장경희)는

2012년 3월 문을 연 이래 지하1층~지상3층과 옥상의 시설에 12명의 센터직원과 17명의 특수사업 직원들이 가정양육지원사업, 어린이집지원사업, 지역연계사업과 기타 특수사업으로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달 복지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김도연 위원장을 비롯한 이용균 부위원장, 박문수, 이영심, 한동진, 유인애, 김명숙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영유아프로그램, 어린이집 보육직원 전문성증진교육, 골목대장 역사·문화 탐험 등의 주요사업과 보육반장사업, 마음 두드림(Do-dream), 시간제보육사업 등의 특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체교사 모집, 회계 컨설팅, 주차 관리 문제, CCTV 설치 등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 방법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2시간여의 현장 활동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대여실, 상담치료실, 세척실, 사무실 등 각종 주요시설을 둘러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으며, 김도연 위원장은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도 편리하게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최고의 육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보육교사들에 대한 스트레스 예방과 전문교육으로 여성과 아동 모두가 행복한 강북구가 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아동학대의 경우 보육교사의 감정
컨트롤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 제기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도연)는 제1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에 걸쳐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인수봉로 66길 9)를 방문하여 육아 복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살펴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장경희)는 2012년 3월 문을 연 이래 지하1층부터 지상4층과 옥상의 시설에 12명의 센터직원과 17명의 특수사업 직원들이 가정양육지원사업, 어린이집지원사업, 지역연계사업과 기타 특수사업으로 출산에서 양육까지 토탈 복지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김도연 위원장을 비롯한 이용균 부위원장, 박문수, 이영심, 한동진, 유인애, 김명숙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영·유아프로그램, 어린이집 보육직원 전문성증진교육, 골목대장 역사·문화 탐험 등의 주요사업과 보육반장사업, 마음 두드림(Do-dream), 시간제보육사업 등의 특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측은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아이조아~서울' 맞춤 컨설팅을 12개 어린이집에 각 4회에 걸쳐 진행 중이고, 종로 생명 숲, 우이한솔 어린이집 등 우수어린이집을 방문해 타 구의 좋은 사례도 도입을 하려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지역연계사업의 일환으로 골목대장 역사·문화 탐험은 타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강북구의 좋은 사업으로 2014년부터 강북문화원과 연계하여 진행했고 2015년도에



▲ 강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들이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현장 방문한 모습.

는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과 2016년에는 반달문화원과 정서적인 부분을 위해 연계하여 교육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이생각 키움 프로그램으로 강북교육 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시범 4개소와 156회 진행했으며 매우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 2016년도엔 확대할 예정에 있고, 재능기부사업으로는 23명의 재능기부자가 38개 어린이집에 1355회에 걸쳐 8개의 활동으로 진행 중으로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당면과제로 주차관리와 옥상, 지하, 외부 주차장에 CCTV 설치를 하는 것과, 장난감 세척인력,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력 충원, 유아체험실, 슬로프길, 잔디관리 등의 시설보완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 된 현장 활동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대여실, 상담치료실, 세척실, 사무실

등 각 층 주요시설을 둘러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이용균 부위원장은 "각 어린이집에서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인한 대체교사 충원이 사실상 매우 어렵는데 센터에서 적극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지원금을 받는 곳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회계부분인데, 좀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도연 위원장은 "강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도 편리하게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최고의 육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 고생하는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보육교사들에 대한 스트레스 예방과 전문교육으로 여성과 아동 모두가 행복한 강북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며, "아동학대의 경우 보육교사의 감정 컨트롤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듯 하니 센터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